

## H. Hesse에 있어서의 傍觀者의 문제

金 錫 道

(獨文科 副教授)

### I.

Hesse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거의 대다수가 현실세계와는 너무 거리가 먼 「이방인」(Fremdling)들이거나 적극적인 행동보다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방관자」(Zuschauer)들이 아니면 시민사회의 질서 속에 동화되지 못하고 그 밖으로 「밀려난 자」(Ausgestoßener)들이거나 또는 스스로 그 질서를 거부하고 그 「마깎에 서있는 자」(Draußenstehender)들로서 한 마디로 말해 진정한 市民像에서 벗어난 「국외자」(Außenseiter)들이다. 이런 「국외자」들은 1901년에 발표한 「Hermann Lauscher」에서부터 시작하여 1943년에 펴낸 「Das Glasperlenspiel」에 이르기까지 약간씩 그 모습이 변모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어느 작품 속이나 다 어김없이 그 얼굴을 내밀고 있다. Hesse의 최초의 서정적 산문집인 「Hermann Lauscher」에는 현실생활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美와 진실만을 추구하며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독선적이고 몽상적인 유태주의자(Lauscher)가 등장하고 있고 Hesse의 「최초의 문학적 성공」<sup>1)</sup>으로 지목되고 있는 「Peter Camenzind」(1904)에는 「我執과 利欲 위에 세워진 현대문명」<sup>2)</sup>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을 현대사회의 영원한 이방인으로 단정하여 도시를 버리고 고향의 자연 속으로 숨어버리는 청년(Camenzind)이 그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그릇된 교육관에 일침을 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불의를 빚었던 「Unterm Rad」(1906)에는 학부모들의 허영과 교사들의 강압적인 태도, 신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나약하고 섬세한 소년(Hans Giebenrath)이, 그리고 미완의 斷篇으로 끝난 「Berthold」(1907)에는 자기 역제력의 缺如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두운 충동에 휘말려 살인까지 범하고 쫓기는 한 청년이 각각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술과 삶의 문제를 다룬 「Gertrud」(1910)와 「Rosshalde」(1914)에는 현실생활을 허위와 악의로 가득찬 것이라고 외면하고 고독과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한 불구의 음악가(Kuhn)와 가정과 처자를 버리고 세상을 등진채 호반의 아트리에에서 「표현의 외로운 기쁨」<sup>3)</sup>으로 자신을 불사르는 한 화가

1) H. Hesse: raumfährte, Kurzgefaßter Lebenslauf. Suhrkamp Verlag 1959. S. 80.

2) H. Hesse: Peter Camenzind. Suhrkamp Verlag, Berlin u. Frankfurt a.M. 1958. S. 173.

3) H. Hesse: Gertrud, Gesammelte Schriften (=G.S.) Bd. 2. Suhrkamp Verlag 1958. S. 187.

(Varaguth)가 주인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Hesse의 이른바 「시민적 시대」(Bürgerliche Epoche)<sup>4)</sup>의 작품인 「Diesseits」(1930), 「Kleine Welt」(1633), 「Umwege」(1912) 등에 수록된 단편들 속에서도 이런 인물들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소극적이고 겁이 많아서 남들 속에 섞이지 못하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Andreas Ohngelt(Die Verlobung 1908), 비뚤어진 성격 때문에 세상을 외면하고 점점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Kolb (Emil.Kolb 1912),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술로써 외롭게 살아가는 늙은 Garbaldi (Garbaldi 1908), 한없이 선량하지만 의지력과 추진력이 없어 사회에서 낙오되는 Ladidel (Ladidel 1912), 훌륭한 의도와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Reichhardt(Der Weltverbesser 1912), 심한 결벽증과 지나친 사색벽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神을 찾다가 정신이상자가 되어 자살하는 Kömpf(Walter Kömpf 1908)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소심하고 의지력이 박약하며 비타협적, 비사교적이고 나약, 섬세하며 선명질적인데다가 현실사회에 대한 적응감각이 부족해서 결국 사회생활에서 도태되고 마는, 이를테면 삶의 패배자들이다. 이런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Knulp이다. Hesse가 자기 작품의 주인공 중에서 「매우 매력적」(sehr anziehend)<sup>5)</sup>인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Knulp는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생활에서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하고 일생동안 실직자로서 떠돌다가 눈덜인 산 속에서 퍼를 토하며 자신의 삶을 달고 만다.

이와같이 Hesse의 전기작품의 인물들이 Knulp처럼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을 찾는데 실패하고 본의 아니게 시민사회 밖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들인데 비하여 그의 후기작품, 예를 들어 「Demian」, 「Siddhartha」, 「Klein und Wagner」, 「Der Steppenwolf」, 「Die Morgenlandfahrt」 「Das Glasperlenspiel」 등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무능력때문에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질서에 대한 순응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질서 밖으로 뛰쳐 나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Hesse의 작품경향의 變調를 처음으로 알린 「Demian」(1919)의 Sinclair에서부터 이미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Sinclair는 Hesse 자신처럼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속한 「밝은 세계」보다 가난하고 누추하며 온갖 범죄로 들끓는 「어두운 세계」를 더 동경하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기 내부의 무의식적인 생명력이 이끌리어 선과 악, 신과 악마를 한 몸애 지닌 새로운神을 찾아 헤맨다. Knulp로 대표되는 전기작품의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Hesse가 그리는 人間像에는 크다란 변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모는 Dostoevskij적인 수법으로 범죄심리를 다룬 「Klein und Wagner」(1919)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Klein은 아주 착실한 은행원으로서, 선량한 가장으로서 평범하고 안락한 시민생활에 만족하는 모범적인

4) H.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 sein Werk. Suhrkamp Verlag Berlin u. Frankfurt a.M. 1957. S. 104.

5) H. Hesse: Briefe. G.S. Bd. 7. Suhrkamp Verlag 1975. S. 588.

샬러리맨이다. 이런 그가 어느날 갑자기 시민사회의 질서 속에 동화되어 있는 자신을 혐오하며 그 질서를 교란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그는 공금을 횡령하여 하루 아침에 성실한 직장인에서 파렴치범으로 전락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으며 미국의 도시들을 헤메다가 결국 호수 속에 투신하여 죽음으로써 자신을 해체하고 만다. 이와 같이 기존질서 체제에 대한 Klein의 도전이 범법행위에 의한 자기 파멸로 끝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S'iddhartha(S'iddharta, Eine indische Dichtung 1922)의 그것은 자기 고뇌에 의한 자아 발견으로 승화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S'iddhartha는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사회 규범이나 종교적 진리일지라도 자기 체험을 통해 그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철저히 불신하며 배척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족이 신봉하는 婆羅門敎의 敎義도 佛陀의 가르침에도 승복하지 않고 오직 자기 체험을 통해 참다운 깨달음을 얻어 빈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도 가문의 후광도 다 포기하고 출가하여 無師獨悟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苦行을 계속한다. 이미 주어진 외적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Die Morgenlandfahrt」(1932)의 H.H.나 「Das Glasperlenspiel」의 Knecht도 예외는 아니다. 「Die Morgenlandfahrt」의 H.H.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시간과 공간,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영원한 정신을 찾아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동양 순례단이라는 환상적인 질사에 가입하여 영혼의 순례 길에 오른다. 이런 기발한 순례는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유희에 지나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현실 사회를 부정하는 낭만주의적인 Ironie가 작용하고 있다. Hesse의 최후의 대작인 「Das Glasperlenspiel」의 Knecht는 Kastalien이라는 정신의 왕국에서 유희명인이라는 최고의 지위에까지 오르지만 그 왕국의 정신적 질서에 대해 깊이 회의를 느끼고 Kastalien과 결별하여 환속하지만 속세에 발붙일 틈도 없이 호수에서 익사하고 만다. Knecht의 죽음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지만 Kastalien의 질서를 거부하고 현실세계로 돌아온 그의 용단을 그의 주장대로 발전적인 비약으로만 받아 들이기에는 그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망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Knecht가 현실과 격리된 세계의 정체된 질서에서 한계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이라는 냉혹한 역사세계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과는 대조적으로 「Der Steppenwolf」(1927)의 Harry Haller는 그런 역사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평범한 시민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상사회와 화목한 교호관계를 체결할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기를 의식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그는 자신을 「황야의 이리」라고 믿고 길을 잃어 시민사회 속으로 잘못 들어와 우리 속에 갇히버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영구히 시민사회의 질서 속에 영입될 수 없는 이단자라고 단정하고 그 질서 밖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비판하고 공격한다. 이런 점에서 Haller는 Hesse의 후기작품의 인물 중 가장 철지한 아웃사이드인 셈이다.

이와 같이 Knulp로 대표되는 전기작품의 주인공들이나 Haller로 대표되는 후기작품의 주인공들이나 모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시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생의 패배자들로

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도, 그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뚜렷한 공동체의 식도 없이 그 주위를 맴돌며 그 속을 기웃거리기만 하는 방관자들이다.

## 2.

사회는 이런 방관자들이나 아웃사이드들을 무능력자라고 경멸하거나 심지어 정신병자라고 매도하여 박해하기도 하고 사회발전의 공적이라고 탄핵하여 추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Hesse는 남들과 달리 이런 인물들에게 자멸한 애착을 느끼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Hesse는 오히려 이들을 쓸모없는 �蟲이나 질서의 파괴자로 지탄하는 사회풍토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들은 「천부의 재능과 혼을 가진 인간들」<sup>6)</sup>이지만 그들의 강한 개성과 주체의식 때문에 외부의 권위나 법칙을 일체 인정하지 않을 뿐이며 이런 그들의 태도가 균일화를 요구하는 사회질서 속에 영입될 수 없어서 그들의 재능이 발휘될 기회가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타의에 의해 규정된 사회법칙, Hesse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에 의해 주어진 규범」<sup>7)</sup> 보다도 자기 스스로 세운 「자기 자신 안의 법칙」<sup>8)</sup>을 더 중요시하며 이런 자기안의 법칙에서 나오는 「내부의 명령」<sup>9)</sup>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일하고 무조건 신성한 자기 안의 법칙」<sup>10)</sup>만을 「마음의 지도자」<sup>11)</sup>로 삼아 거기에만 따르려는 인간들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순수하게, 자유롭게 자기 내부에서 체험하고 발휘하려는 인간들」<sup>12)</sup>은 필경 사회질서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Hesse는 이런 충돌에서 그들이 좌절하는 것은 그들이 약하거나 무력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고루하고 편협한 사회관습이나 가치기준이 그들의 완강한 자기 주장이나 독창적인 생존양식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그 탄력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너무 용적이 큰 인간들」<sup>13)</sup>이기 때문이라고 Hesse는 해석하고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서 그는 한 독자에게 보던 편지에서 Knulp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렇게 항의하고 있다.

Sie(=Gestalten wie Knulp) sind nicht «nützlich», aber sie tun sehr wenig Schaden, viel weniger als manche Nützliche, (...). Vielmehr glaube ich: wenn begabte und beseelte Menschen wie Knulp keinen Platz in ihrer Umwelt finden, so ist die Umwelt ebenso mitschuldig wie Knulp

6) ebd. S. 588.

7) H. Hesse: Betrachtungen, Eigensinn. G.S. Bd. 7. S. 194.

8) ebd. S. 194.

9) H. Hesse: Wanderung, Verlorenheit. Suhrkamp Verlag Berlin 1949. S. 28.

10) H. Hesse: Betrachtungen, Eigensinn. G.S. Bd. 7. S. 194.

11) H. Hesse: Klein und Wagner. Suhrkamp Verlag Berlin u. Frankfurt a.M. 1958. S. 148.

12) H. Hesse: Betrachtungen, Eigensinn. G.S. Bd. 7. S. 198.

13) H. Hesse: Der Steppenwolf, Harry Hallers Aufzeichnungen. Suhrkamp Verlag Berlin 1956. S. 185.

selber, und wenn es irgend etwas gibt, was ich den Lesern raten möchte, so ist es dies: die Menschen zu lieben, auch die schwachen, auch die Nichtnützliche, nicht aber sie zu richten.<sup>14)</sup>

이들에 대한 Hesse의 옹호는 후기작품으로 들어 갈수록 더욱 적극성을 띠어 「Der Steppenwolf」에 이르러서는 Haller와 같은 생의 방관자들을 현대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모순과 병폐때문에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희생된 불우한 「고뇌의 천재」<sup>15)</sup>들이라고 부르며 이들이야말로 병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싸우다가 쓰러진 시대의 선구자이며 순교자들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Hesse는 사회적 통념을 뒤엎고 세상으로부터 냉대받고 있는 이런 방관자들의 존재의의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 하에서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현대문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명과 인간,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 규명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대한 하나의 정면도전으로서 거대한 산업문명 속에 매몰되어 가는 인간을 제발굴하여 그 존엄성을 지키려는 Hesse의 인도주의적인 투철한 작가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철저한 「방관자」(Zuschauer)<sup>16)</sup>로서, 「反俗人」(Antipilister)<sup>17)</sup>으로서, 「낭만적인 아웃사이드」(The Romantic Outsider)<sup>18)</sup>로서 인생을 관조해 온 Hesse 자신의 자기 검토와 해명을 통한 자아 실현에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Hesse가 묘사하고 있는 방관자들은 그 성격상 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Hans Giebenrath, Knulp, Garbaldi, Reichhardt처럼 개인의 능력, 적성, 성격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완전히 실패하고 파멸하는 폐쇄자들이고 두번째 유형은 Peter Camenzind, Emil Kolb, Kuhn, Varaguth, Andreas Ohngelt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체념으로써 생의 파국을 슬기롭게 모면해 나가는, 이를테면 철저한 운명론자들이다. 여기에 반하여 세계 유형에 속하는 Berthold, Sinclair, Kömpf, Siddhartha, Harry Haller, Knecht 등은 시민사회의 기존 질서를 진적으로 부정하고 그것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스스로 형극의 길을 택한, 말하자면 시대나 사회의 반역아들이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인간상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Knulp, Kuhn, Harry Haller의 경우를 각각 예로 들어서 Hesse가 이런 방관자들에게 각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독특한 생존양식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며 또 그들로 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4) H. Hesse: Briefe. G.S. Bd. 7. S. 588.

15) H. Hesse: Der Steppenwolf, Tractat vom Steppenwolf. S. 6.

16) H.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S. 115.

17) ebd. S. 112.

18) C. Wilson: The Outsider. London 1957. S. 47.

## 3.

Knulp는 젊은 시절에 겪은 실연의 상처때문에 탈선한 이후부터 세속적인 의미의 생활을 되찾지 못한 병든 방랑자이다. 그는 직업에 종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직자로서 동가식 시가속하며 자기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남의 집에 맡겨 두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간이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기피하며 혼자서 외롭게 살아 간다. 그렇다고 그가 인간 자체를 싫어 하거나 집단생활의 규범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섬세하고 연약한 심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뿐이다. 그는 인간을 함없이 사랑하고 질서를 존중하지만 이해타산에 밝고 배타적인 인간들의 눈에는 한 것 무위도식배로 밖에는 비쳐지지 않는다. 그는 그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외에는 일체 인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美를 찾는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기쁨이나 슬픔, 불안을 동반하며 영속적인 美는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한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서 마음을 끄는 것을 결국 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의 이런 신념은 「무상의 음악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sup>19)</sup>고 한 Hesse 자신의 미학관에서 나온 것이다. Knulp는 이런 美를 자유롭게 찾기 위해서 定住를 단념하고 일생을 방랑으로 보내지만 자신의 有限한 생명을 통해 죽음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을뿐 결국 아무 것도 찾지 못한채 빈 손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는 무상 속에서 영속적인 美를 찾으려고 한 점에서 Goldmund(Narziss und Goldmund 1930)를 연상시키지만 Goldmund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적극적 체험욕이나 창조적 능력과 열의 같은 것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 영원한 美가 인간사회 안에서 고통스런 생존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세속적인 삶을 기피하며 시민사회 밖에서 소극적으로 안을 기웃거리는 Knulp에게서 그것을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神이 그에게 맡긴 소임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神이 이 소심하고 무능한 방관자에게 부여한 재능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나 노래를 들려 주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밝고 순수한 웃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두운 사회에 던지는 아주 희미한 한 줄기 빛에 불과한 것이지만 Knulp는 이런 빛을 통해 사회질서라는 견고한 울타리 속에 갇힌 시틴들에게 자유와 사랑의 소중함을 은밀하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Knulp가 산을 오르다가 눈 위에 각혈하며 쓰러졌을 때 神은 이 인생의 패배자에게 오히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방랑하며 定住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자유에 대한 향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소임을 다했다.」<sup>20)</sup>고 축복해 주고 있다. 결국 사회질

19) H. Hesse: Wandderung, Mittagsrast. Suhrkamp Verlag Berlin 1949. S. 83.

20) H. Hesse: Knulp. Gesammelte Werke Bd. 4. werkausgabe edition suhrkamp, Frankfurt a.M. 1976. S. 524.

시에 순응하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모범적인 시민들은 질서에 얽매어 자유를 잃은 병자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벌한 생존경쟁으로 말미암아 사랑마저 잃은 정신적 불구자이다. 그들은 질서에 대해서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봉하는 그 질서가 질서라기 보다는 하나의 혼돈인 것도,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가 이바 몰락기에 접어 들어 창조적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Knulp처럼 바깥에서 자유롭게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인간들은 그 혼돈을 직시하여 시대의 病狀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Knulp는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무익한 浪人만은 아니다. 神의 찬사처럼 「자유에 대한 향수를 끊임없이 진하는 소인」만으로써도 그는 사회에 대해 충분히 공헌했던 것이다. Knulp와 같은 생의 방관자에 대한 Hesse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Der Steppenwolf」(1927)에서 더욱 적극적이며 구체화 된다.

Knulp에 비하면 Kuhn(Gertrud 1910)은 같은 수동적인 방관자이면서도 훨씬 지혜롭고 세상을 바라 보는 눈도 더 깊다. Kuhn은 학창 시절에 부질없이 모험심을 발휘했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불구의 몸이 되었다. 그후 그는 마음 속으로 사모하던 연인마저 친구에게 빼앗기고 신체적 열등감과 폐배의식에 깊이 사로잡힌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사회생활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며 두려운 표정으로 바라 보기만 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외롭게 살아 가며 자신의 불행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써 잊으려고 한다. 그래서 Kuhn에게는 음악만이 세계의 전부이자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러나 음악만으로써도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해 마침내 그는 接神術까지 배우지만 기기에서도 궁극적인 위안을 찾지 못하고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Kuhn은 이런 절망과 고뇌를 통해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하나의 깨우침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서 체념한다. 그의 이런 체념은 승인과 화해에 입각한 긍정적 정신에서 나온 초월의 지혜이다.

Das Schicksal war nicht gut, das Leben war launisch und grausam, es gab in der Natur keine Güte und Vernunft. Aber es gibt Güte und Vernunft in uns, in uns Menschen, mit denen der Zufall spielt...<sup>21)</sup>

이와 같이 Kuhn은 모든 현상이 필연적이고 운명적이며 선악을 초월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의지 속에는 선악의 판단이 있다고 긍정하고 있다. 선과 美에 바탕을 둔 진실만을 추구하던 Knulp에 비하면 인생을 빈틈스런 것만으로 일단 승인하고 善惡과 이성을 인간의 정신 속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Kuhn이 인생에 대한 시야나 통찰력에서 더욱 넓고 깊다. 그래서 이제 Kuhn은 「행복이 고뇌와 고통 속의 정화로써 얻어질 수 있다면 어떤 고뇌와 고통도 그것을 피해야 할만큼 크지는 않다」<sup>22)</sup>는 생각을 가지고 운명이 그에게 가하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 들일 수가 있고 고뇌와 평화를 다같이 위대한 음악의 박자이고 힘이며 부

21) H. Hesse: Gertrud. G.S. Bd. 2. S. 191.

22) ebd. S. 34-35.

분으로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Und während es mir innen wohl oder weh erging, stand meine Kraft doch in Ruhe darüber, schaute zu und erkannte das Helle und Dunkle als geschwisterlich zusammengehörend, das Leid und den Frieden als Takte und Kräfte und Teile derselben großen Musik.<sup>23)</sup>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Kuhn의 체념이 단순히 그의 페베의식에서 나온 자기 합리화의 強辯만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Kuhn의 운명론의 배경에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지는 불가항력의 운명에 체념하면서도 선의와 노력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올바르게 키워 나가려는 Kolb (Emil Kolb 1912)나 거대한 운명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Schlotterbeck (Heimkehr 1912)의 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간에게 미치는 운명의 힘이 나 그 필연성을 의식하고 그것을 자각한 행위에서만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Kuhn의 운명관에는 Helene (Die Marmorsäge 1930)의 경우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있으므로 완전히 자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을, 자신만이 소유한 생활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3)</sup>는 적극적인 의도가 뒷받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운명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고유의 생활을 창조할 수 있을 때 그는 「자원이냐 운명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결국 Kuhn은 운명을 꺾을 수 없는 하나의 필연적인 힘으로 간주하지만 그것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운명이 그에게 정해진 삶을 올바르게, 충실하게, 창조적으로 영위함으로써 逝으로 그 운명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태도는 곧 불가항력의 필연적인 제약 하에 있는 인간에게 강인한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Kuhn의 체념은 어떤 절망적인 자기 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근저에 「위대한 생명의 의지」<sup>25)</sup>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고 위대한 생명의 흐름의 일환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Kuhn의 세계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자신의 위치를 긍정하고 있는 그는 결코 일반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소심하고 나약한 인간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고뇌나 절망에도 꺾일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밝음과 어둠, 고뇌와 평화를 다같이 위대한 음악의 한 부분으로 느끼고 삼라만상과 형제자매가 되어 그것과 더불어 소멸하고 재생할 수 있다고도 믿었던 것이다. 이런 그의 믿음은 「어떤 생명이나 다 광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sup>26)</sup>는 그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모든 사물에 대한 영혼의 共感을 기반으로 한 그의 열렬한 一體感에서 나온 것이다. Hesse는

23) H. Hesse: Diesseits, Die Marmorsäge. Suhrkamp Verlag Berlin 1954. S. 22.

24) H. Hesse: Gertrud. G.S. Bd. 2. S. 191.

25) ebd. S. 138.

26) ebd. S. 138.



Kuhn의 이런 공감과 일체감이 바로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에 연유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Kuhn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절망한 나머지 한 때 엄세관에 깊이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이런 절망과 고뇌 속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느꼈고 삶과 사랑에 대한 커다란 긍정에 도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처럼 무용지물의 존재로서 시민사회에 던져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식, 기술, 능력, 능률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병든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 헌신, 고통의 의미를 교시하고 삶에 대한 신성한 외경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召命된 인간인 것이다.

## 4.

「Der Steppenwolf」(1927)의 주인공인 Harry Haller는 Kuhn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황야에서 길을 잃고 문명사회 속으로 잘못 들어 온 한 마리의 이리라고 생각하며 문명사회 속의 자신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 속에서 삶을 향유하면서도 그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시민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철저한 운명론자인 Kuhn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Haller는 섬세하고 신경질적인 외모에다 날카로운 지성과 품위를 지닌, 이룰테면 「정신적 인간」<sup>27)</sup>이다. 그러나 그는 50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관념과 서적 속에 파묻혀 살아온 폐쇄적인 인간으로서 그가 자칭하고 있는 「황야의 이리」라는 말에 어울리게 夜行性이 강하여 밤 늦도록 활동하다가 정오까지 늦잠자는 「지녃의 인간」<sup>28)</sup>이기도 하다. 그는 야수들에게 공통된 강한 공격본능때문에 인간 사회의 규율이나 제도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매도한다. 이런 그의 反社會的인 언동때문에 시민들은 그를 병자로 단정하여 기피하며 매로는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가 시민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밖에서 그것을 응시하며 비판과 비난을 서슴치 않는 것은 그가 정신병자이어서가 아니고 부패해 가는 사회 질서와 자신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반발은 바로 그가 사회 질서나 자아의 끊임없는 갱신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Haller는 평범한 시민이면 생각하지도 않고 괴로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괴로와 하는, 이른바 「고뇌의 천재」<sup>29)</sup>인 것이다. 그는 자아의 자유로운 伸張이나 완성을 가로막는 모든 외적 제약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나 Haller처럼 강한 개성과 자기 주장으로써 현실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인간들

27) H. Hesse: Der Steppenwolf, Vorwort der Herausgebers. S. 15.

28) H. Hesse: Der Steppenwolf, Tractat vom Steppenwolf, S. 6.

29) ebd. S. 6.

을 시민 사회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생활은 언제나 「괴로움으로 가득찬 영원한 동요이며 바위에 부딪쳐 산산히 부서지는 파도」<sup>30)</sup>일 수 밖에 없다. Hesse는 한 편지에서 Haller처럼 진리나 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세계에 참여하여 그 빛을 전신에 받고 싶어하는 인간은 결국 그들의 강한 自由獨尊 의식때문에 일상생활에 동조하지 못하고 고독한 방관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In wem die Liebe zur Wahrheit oder zum Schönen, das Verlangen nach Aufnahme in ihr Reich, nach Teilhabe an ihrem Licht stark genug ist, der mag in seinem Tagesleben nach wie vor vereinsamt und unverstanden bleiben...<sup>31)</sup>

Hesse에 의하면 「시민적」이라는 말에는 바로 「균등화의 시도」<sup>32)</sup>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이런 「균등화의 시도」는 곧 「인간 행동의 무수한 극단과 대립간의 평균화의 노력」<sup>33)</sup>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에는 이런 「무수한 극단과 대립」을 규제하여 평균화시키려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 즉 도덕, 윤리, 관습등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규정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회적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규제해야 한다. E. Fromm은 시민의 이런 자기 관리와 규제를 「자동 인형적인 순응」<sup>34)</sup>이라고 부르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체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Haller처럼 「고도의 개성화로 규정된 人間들」<sup>35)</sup>은 「그 친절과 힘이 너무 풍부하여 그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sup>36)</sup> 이런 사회적 요구나 자기 규제에 따를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하여 Haller와 같은 천재들은 시민사회의 편협하고 고루한 질서 속에 수용되기에는 「容積이 너무 큰 인간들」<sup>37)</sup>이다. 이런 인간들은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규범, 다시 말하면 「외적인 우연의 법칙」<sup>38)</sup>보다 자기 내부의 법칙이나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며 자유롭게 자아의 부단한 擴充을 도모하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순수하게, 자유롭게 자기 내부에서 체험하고 발휘하려는 인간들」<sup>39)</sup>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안락과 순응 속에 길든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는 「자기 보존을 위한 건강하고 유용한 감각과 모든 시민적인 덕의 전수를 상실한 맹자」<sup>40)</sup>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병든 인간들은 이들이 아니라 부패한 질서

30) ebd. S. 6.

31) H. Hesse: Briefe. G.S. Bd. 7. S. 717-718.

32) H. Hesse: Der Steppenwolf, Tractat vom Steppenwolf. S. 14.

33) ebd. S. 14.

34) E. Fromm: The Fear of Freedom (이극찬 역) 1969. p. 213.

35) H. Hesse: Briefe. G.S. Bd. 7. S. 548.

36) H. Hesse: Der Steppenwolf, Vorwort des Herausgebers. S. 18.

37) H. Hesse: Der Steppenwolf, Harry Hallers Aufzeichnungen. S. 185.

38) H. Hesse: Betrachtungen, Eigensinn. G. S. Bd. 7. S. 196.

39) ebd. S. 198.

40) H. Hesse: Betrachtungen, Die Brüder Karamasoff. G.S. Bd. 7. S. 177.

와 사멸되어 가는 문화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낙천적인 법속인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우리 속에 갇힌 가축 메처럼 자유를 상실한 멍장들이고 목전의 피상적인 현실 밖에 볼 줄 모르는 장님들이다. 그러나 Haller와 같은 방관자들은 그 현실을 투시하여 그 속에서 혼돈을 발견하고 그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의 혼돈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 들이고 시대의 고뇌를 개인의 고뇌로 떠맡는 용기있는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현대의 아틀라스이다. 그들은 노쇠하여 몰락해 가는 유럽의 문화를 신생으로 이끌기 위해 「招命받은 자들」<sup>41)</sup>이다. Hesse는 몰락기의 문화가 절실히 요구하는 인물은 건장한 상식인들이나 희대의 영웅들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 가며 시대의 병리와 혼란을 적시하여 그것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애인자, 다시 말하면 Haller와 같은 「고뇌의 천재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Hesse는 새로운 창조를 전제로 한 이들의 부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풍조를 개탄하면서 한 편지에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숙련된 관료주의나 근면성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인격, 양심, 책임이다.」<sup>42)</sup>라고 지적하며 시대의 혼돈을 바라 보고 그것을 정적하게, 용감하게 고발하는 이들의 양심, 그런 혼돈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해 보려는 이들의 강한 책임 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존의 혼돈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관찰과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C. Wilson이 Haller와 같은 방관자나 아웃사이터를 가리켜 「벽 구멍을 통하여 인생을 들여다 보는 인간」<sup>43)</sup>이라고 부른 것은 법속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혼돈에 대한 이들의 날카로운 투시력과 통찰력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밖에서 벽 구멍을 통하여 「너무 깊이, 너무 많이 바라 본 것」<sup>44)</sup>은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의 혼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속의 인사이더들의 눈에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Haller와 같은 아웃사이더들의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이 摘出될 수 없다. 따라서 Haller는 옆에서 무관심하게 바라 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주의깊게 관찰하며 끊임없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적극적인 방관자인 것이다. Hesse는 이런 방관자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그의 노폐한 조직 속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아 신진대사를 촉진하지 않으면 그 자체의 침체된 무게에 억눌려 사멸해 버린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생의 방관자들은 시민사회의 무용지몰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지주인 것이다. 그러나 Haller와 같은 애인자가 걷는 길은 평탄치가 못하다. A.J. Toynbee에 의하면 애인자라는 것은 한 문명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할 때 다른 하나의 문화가 탄생시키는 인간이다.<sup>45)</sup> 이와 같이 두 시대, 두 문화가 교차할 때 탄생하는 애인자

41) H. Hesse: Briefe, G.S. Bd. 7, S. 547.

42) ebd. S. 548.

43) C. Wilson: The Outsider, p. 11.

44) ebd. p. 16.

45) A.J.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New York 1948, p. 15.

는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시대인들로부터 유죄의 선고를 받으며 외롭게 고뇌의 병에 걸리는, 이른바 「獨行者」<sup>46)</sup>들이다. 그래서 Haller도 「지옥의 순례」<sup>47)</sup>와 같은 이런 苦行을 감수하고 「헌신과 투쟁, 절망적인 희생」<sup>48)</sup>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 들인다. 이런 태도는 그의 가슴 속에서 시대나 사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Haller는 이런 사랑 때문에 그를 냉대하고 박해하는 시민사회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돌며 그 사회의 演劇的 風土, 물질과 기술에 대한 과대 망상, 개인을 조직의 한 단위로 격하시키는 인간 경시 풍조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회 속에 만연되어 가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구수주의를 비난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시민들의 자기 만족, 안일한 생활 방식, 낙천주의적인 자기 합리화, 도착적인 향락 추구를 질타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는 현대 사회의 기대한 메카니즘 속에 매몰되어 인격과 주체성을 상실해 가는 인간을 그 본연의 위치와 사명으로 환원시키고 개별화되고 고립화되어 가는 인간에게 유기적인 일체감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의미를 상실해 가는 인간 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애쓴다.

이와 같이 Hesse는 Haller와 같은 방관자들을 사회의 일반적 시각과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고 평가하여 이들의 존재 의의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통념이나 편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의 이런 시도는 Haller와 같은 인물에 대한 작자의 개인적인 편애나 選好性을 떠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명과 인간, 조직과 개인,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현대 문명 속에서의 인간 회복의 과제를 추구하여 해명해 보려는 작자 자신의 투철한 작가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 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Knulp, Kuhn, Haller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들의 철저한 내향성이다. 내향성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리비도(Libido), 즉 본능적인 심적 에네르지의 내향을 의미한다. 이 세 주인공들은 다 같이 주관적인 因子가 강한 인간들로서 자신의 내면만을 절대시하고 외계의 것은 거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유심론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실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외계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주관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수렴된 현실일 뿐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외계에서가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그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思考와 행동은 언제나 세간의 통념과는 背馳되고 이것이 그들의 현실 도피 경향을 더욱 조장한다. 게다가 그들의

46) H. Hesse: Briefe G.S. Bd. 7. S. 718.

47) H. Hesse: Der Steppenwolf, Vorwort des Herausgebers. S. 360.

48) H. Hesse: Briefe. G.S. Bd. 7. S. 717.

사고는 감성의 배후에서 추상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공상적이고 자유분방하다. 그들은 뛰어난 상상력으로써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함께 비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영월의 빛을 비쳐서 만물 속에 神性を 顯示할 수 있고 자기의 영혼을 大宇宙로 확대하여 그 속에 세계도, 神도 다 포용하여 神과 대화할 수 있는 마법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마법적인 가능성의 분위기」<sup>49)</sup> 속에 살며 끊임없이 영원불멸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들에게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나 적극적인 참이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들은 시민사회라는 좁고 갑갑한 우리 속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공상의 날개를 저으며 자유롭게 無限大空을 날며 「神의 殘映」<sup>50)</sup>을 찾아 헤맨다.

Knulp 뿐만 아니라 Kuhn이나 Haller도 다 같이 적관적이며 감정적인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의식의 배후의 현상을 자각하는 애인자적 소질이 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비범한 직관력과 날카로운 炯眼 때문에 그들이 걷는 길에는 항상 고독과 형극의 시련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걷는다. 그들은 현재의 순간보다 미래의 생생민화와 그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므로 기존의 가치 체계나 고정된 법칙, 敎說같은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무한한 발달 가능성을 신뢰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순수하고 애민하기 때문에 곧잘 우울증에 빠져 자조적이고 자학적인 면을 들어 내기도 하고 자기 포기적인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나 시대에 대해 무책임하지는 않다. 빈인들보다 「더 섬세한 마음의 진동」<sup>51)</sup>을 가진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며 빙든 시대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 시대와 더불어 괴로와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뇌의 천재」인 그들은 절망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와 정열은 그의 가슴 속에 숨겨진 불씨, 다시 말하면 「위대한 것을 구하려는 현실의 갈망」<sup>52)</sup>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절망과 고뇌를 통해서 자성을 인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과 고뇌가 크면 클수록 그들이 회구하는 「위대한 것」에 접근할 수 있다. Hesse는 「Die Morgenlandfahrt」에서 「고뇌가 충분히 커질 때 진전이 있다」<sup>53)</sup>고 했고 A.J. Toynbee도 과거의 역사에서 고뇌의 체험이 神의 啓示를 주어 「진보의 최고 수단」<sup>54)</sup>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도 고뇌의 체험을 통해 神의 啓示를, Hesse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신성하고 영원한 빛」<sup>55)</sup>을 찾으려고 어둠 속을 헤쳐간다. 그들은 이런 빛을 자신들의 품에 받을 뿐만 아니라 「Der Dichter」(1913)의 주인공처럼 「그 빛을 세계에 투사하여 그 영상 속에 세계 그 자체

49) H. Hesse: Der Steppenwolf, Tractat vom Steppenwolf. S. 20.

50) H. Hesse: Der Steppenwolf, Harry Hallers Aufzeichnungen. S. 49.

51) H. Hesse: Briefe. G.S. Bd. 7. S. 625.

52) ebd. S. 718.

53) H. Hesse: Die Morgenlandfahrt. Bibliothek Suhrkamp. Frankfurt a.M. 1965. S. 169.

54) A.J.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p. 15.

55) H. Hesse: Die Gedichte, Besinnung. Suhrkamp Verlag Berlin 1957. S. 407.

를 醇化시켜서 그것을 영원화하여 소유할 수 있다.]<sup>56)</sup>고 믿고 있다. 그들의 이런 신념 속에는 자기 희생을 통한 세계 평화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런 의지는 시대나 사회에 대한 그들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Hesse 자신이 「Von der Seele」라는 隨想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랑」<sup>57)</sup>에서 나온 것이다.

Hesse는 인간의 영혼의 가장 높고 바람직한 상태는 「탐내지 않는 사랑」<sup>58)</sup>과 「참을성 있는 사랑」<sup>59)</sup>으로써 세계와 혼연 일체가 될 수 있을 때라 했고 이런 상태에서만 인간은 「신성한 목표」<sup>60)</sup>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Haller처럼 절망과 고뇌 속에서도 인간 완성의 모험에 도전하는 천재들을 「사랑의 힘」<sup>61)</sup>이라고 부르고 「인간성의 쇠퇴와 영락」<sup>62)</sup>을 막는 길은 혁명이나 증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천재들만이 연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술」<sup>63)</sup>속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오가 파괴를 바라는 열정이라면 사랑은 어떤 대상을 긍정하여 포용하려는 열렬한 욕구이다. E. Fromm에 따르면 「사랑은 단순한 애정만이 아니고 그 대상의 행복과 성장과 자유를 바라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내면적인 연결이다.」<sup>64)</sup>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인간 상호간에 連帶感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구제될 수 없고 현대 문명의 위기도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이 Hesse의 지론이다. Hesse는 「Demian」에서 인간들이 고독, 불안, 공포에 떨며 사랑의 종교를 갈구하고 있는데도 낯아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기성의 종교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Hesse가 이런 방관자나 아웃사이더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현대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Knulp, Kuhn, Harry Haller와 같은 인물들을 즐겨 작품 속에 등장시켜 그들의 인간상이나 그의 의식 구조에 집요하게 조명을 가하고 있는 Hesse의 의도는 결국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마술」과 창조적 능력, 자기를 스스로의 임의자로 확립하는 투철한 주체 의식, 혼돈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에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 세계를 개선하여 그것과 혼연 일체가 되려는 열렬한 일체감을 통해 현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의 하나인 인간 회복의 문제를 검토하여 해명해 보려는 데에 있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존재들을 일방적으로 탄핵하여 추방하지만 Hesse는 이들이야말로 암흑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 줄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Hesse뿐만 아니라 C. Wilson도 Haller와 같은 방관자들을 사회에 「靈的 에베르기」<sup>65)</sup>를 공

56) H. Hesse: Märchen, Der Dichter. Fischer Bücherei Frankfurt a.M. u. Berlin 1964. S. 38.

57) H. Hesse: Die Gedichte, Besinnung. S. 407.

58) H. Hesse: Betrachtungen, Von der Seele. G.S. Bd. 7. S. 69.

59) H. Hesse: Die Gedichte, Besinnung. S. 407.

60) ebd. S. 407.

61) H. Hesse: Briefe. G.S. Bd. 7. S. 719.

62) ebd. S. 543.

63) ebd. S. 543.

64) E. Fromm: The Fear of Freedom (이극찬 역). p. 138.

급하는 「정신적인 추진력」<sup>66)</sup>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사회에 대한 이들의 은밀한 공헌도를 인정하고 있다. Hesse는 「Das Glasperlenspiel」에서 세상을 등지고 외롭게 고뇌에 찬 영혼을 노래하는 시인을 가리켜 「빛을 가지고 오는 자」<sup>67)</sup>, 「지상의 기쁨과 광명을 늘리는 자」<sup>68)</sup>라고 부르르고 있는데 Knulp나 Kuhn이나 Haller도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사회에 빛을 던져 광명을 늘려 준 존재들이다. Toynbee도 추방이라는 쓰라린 고뇌의 체험을 통해 神의 啓示를 받은 옛 유대인의 流民들을 예로 들어 현대 세계의 이른바 「쫓겨난 자」<sup>69)</sup>들인 이들의 가슴 속에도 언젠가 다시 「靈的 광명」<sup>70)</sup>이 점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피력하며 이들을 주목하고 있다.

시대의 혼돈을 너무 깊이, 너무 많이 적시하여 그것을 개선하려다가 시민 사회에서 쫓겨난 이들이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정신에 대한 외경심을 호소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적 양심을 지키려다가 진쟁과 불의를 옹호하며 물질과 기술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 풍조에서 완전히 밀려난 Hesse 자신이나 다 같이 「쫓겨난 자」들이다.

이런 버림받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 점화될 「靈的 광명」으로 세계를 비추고 그 광명을 통해 세계를 정화하여 「모든 사물의 배후에 神性を 顯示하는 것」<sup>71)</sup>이 어찌면 Hesse가 이들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인간 회복에 의한 세계 개선이 Hesse 문학의 한 특성을 형성하는 모체이며 구심점이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간에 결국 「정화와 해방을 구하는 싸움의 최종적인 귀결」<sup>72)</sup>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Hesse의 말은 이런 점에서 한 번 깊이 음미해 볼만하다.

## 참 고 문 헌

H. Hesse: Gesammelte Werke in Einzelausgabe. Suhrkamp Verlag.

Der Steppenwolf. Berlin 1956.

Das Glasperlenspiel. Berlin u. Frankfurt a. M. 1957.

Wanderung. Berlin 1949.

Klein und Wagner. Berlin u. Frankfurt a. M. 1958.

Peter Camenzind. Berlin u. Frankfurt a.M. 1958.

Diesseits, Kleine Welt, Fablier buch. Berlin 1954.

65) C. Wilson: The Outsider. p. 59.

66) ebd. p. 59.

67) H. Hesse: Das Glasperlenspiel. Suhrkamp Verlag Berlin u. Frankfurt a.M. 1957. S. 350.

68) ebd. S. 350.

69) A.J.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p. 15.

70) H. Hesse: Klein und Wagner. S. 95.

72) H. Hesse: Das Glasperlenspiel. S. 307.

- Die Gedichte. Berlin 1957.
- Die Morgenland fahrt. Frankfurt a.M. 1965.
- H. Hesse: Gesammelte Schriften in 7 Bänden. Suhrkamp Verlag.  
 Bd. 2(1958)/Bd. 3(1952)  
 Bd. 4(1952)/Bd. 7(1957)
- H. Hesse: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Suhrkamp Verlag.  
 Bd. 4(1976).
- H. Hesse: Märchen. Fischer Bücherei. Frankfurt a.M. u. Berlin 1964.
- M. Volker(hrs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er Steppenwolf». Frankfurt a. M. 1973.
- B. Zeller: Hermann Hesse. Hamburg 1966.
- F. Baumer: Hermann Hesse. Berlin 1961.
-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 Leben. Nürnberg 1954.
- H.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 sein Werk. Berlin u. Frankfurt a. M. 1956.
- R.M. Matzig: Hermann Hesse in Montagnola. Studien zu Werk u. Innenwelt des Dichters. Amersbach 1947.
- H.J. Lüthi: Hermann Hesse. Natur und Geist. Stuttgart 1970.
- R. Koester: Hermann Hesse. Stuttgart 1975.
- F. Strich: Der Dichter und die Zeit. Eine Sammlung von Reden u. Vorträgen. Bern 1947.
- E.R. Curtius: Kritische Essays zur europäischen Literatur. Bern 1950.
- R. Minder: Dichter in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1966.
- H. Friedmann u. O. Mann(hrsg.):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Heidelberg 1956.
- C. Wilson: The Outsider. London 1957.
- A.J.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New York 1948.
- E. Fromm: The Fear of Freedom (이극찬 역) Seoul 1969.



(Zusammenfassung)

## „Zuschauer“ bei Hermann Hesse

Suck-Do Kim

Die Figuren, die Hesse in seinen Werken gern darstellt, sind in drei Typen eingeteilt. Die Personen, die zu der ersten Gruppe gehören, können sich dem bürgerlichen Leben nicht anpassen und bleiben darin zurück. Die Personen wie Knulp (Drei Geschichten aus dem Leben Knulps, 1515), Hans (Unterm Rad, 1906), Kolb (Emil Kolb, 1912) usw. bilden diese Gruppe. Die zweite Gruppe besteht aus denjenigen, die gänzlich auf das Leben resignieren und an die Kraft des Schicksals glauben. In diesen Personen sind Kuhn (Gertrud, 1910), Varaguth (Rosshalde, 1914) und Camenzind (Peter Camenzind, 1904) usw. enthalten. Die dritte Gruppe wird von den Personen gebildet, die die Ordnung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ablehnen und sich selbst daraus hinauswerfen. Die repräsentativen Personen dieser Gruppe sind Harry Haller (Der Steppenwolf, 1927), Berthold (Berthold, 1908) und Knecht (Das Glasperlenspiel, 1943).

Alle diese Figuren nehmen fast an dem bürgerlichen Leben nicht positiv teil und fühlen sich selbst nicht als Mitglieder der bürgerlichen Welt, sondern sie stehen außer deren Ordnung und schauen der Welt immer zu. Sie haben fast keinen Erfolg im sozialen Leben. Hesse nennt sie „Zuschauer“, „Draußenstehender“ oder „Außenseiter“.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hält diese Personen für die eine gesellschaftliche Ordnung störenden und vernichtenden Feinde, behandelt sie schlecht und verfolgt sie. Aber Hesse verteidigt sie positiv und behauptet, daß sie keine Feinde der Gesellschaft, sondern die Genies seien, die durch ihre schöpferische Existenzart zur Gesellschaft beitragen. Die aufopfernde Liebe zur Menschheit, die Liebe zur Wahrheit und die schöpferische Treibkraft der Selbstbildung, die sich in ihnen versteckt, versorge die Gesellschaft mit einer seelischen Energie. So scharf diese Genies die bürgerliche Welt beurteilen und deren alte Ordnung absagen, so dürfe die Gesellschaft doch sie nicht in Exil schicken. Vielmehr müssen sie ihnen danken und von ihnen viel erwarten. Hesse findet in ihnen nicht nur eine unendliche Fähigkeit der Liebe und der Schöpfung, sondern auch die nur „unbedingt heilige Gesetze in sich selbst“ befolgende durchsichtige Subjektivität und den unbeugsamen Willen, mit dem sie selbst ununterbrochen ins Chaos werfen, um dasjenige in die neue

Ordnung zu verwandeln. Hesse glaubt, daß die Welt durch ihr inbrünstiges Integrationsgefühl, womit sie die Welt reinigen, verbessern und dann ein in sich vollendetes Ganzes damit bilden wollen, zu erlösen sei. Daher nennt Hesse sie „Lichtbringer“ oder „Mehrer der Freude und Helligkeit auf Erden“.

Hesse kritisiert in seinen Werken hart die falsch geltende Ansicht der Gesellschaft über die „Zuschauer“ oder „Draußenstehender“ und deutet uns an, daß die wünschenswerte Entwicklung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und eine Möglichkeit der Wiederherstellung des Menschen, die im 20. Jahrhundert tieferst als Subjekt einer Diskussion aufgenommen wird, erst dann zu finden ist, wenn die Gesellschaft diese Personen in sich aufnehmen, ihren Kritiken aufmerksam zuhören und sie nützlich verwenden kann.